

# 임실군-강서구, 관광·우호교류 확대

### 임실군수-진교훈 강서구청장, 임실 옥정호, 치즈테마파크, 등 주요관광지·시설 견학

“임실군은 인구 수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옥정호에 왔을 때는 카페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겠구나 싶어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임실군을 방문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심 민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임실군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자매결연도시 중 가장 먼저 임실군을 찾았다는 진 구청장

은 “강서구청과의 자매도시 중 임실군이 가장 오래되었고, 정박이 고향이고 전라북도 경찰청장을 지낸 곳이라서 이곳을 가장 먼저 오게 됐다”고 방문 배경을 전했다. 이틀간에 걸쳐 임실군을 방문한 진 구청장 일행은 자매도시인 임실군과의 우호 교류 및 주요시설 시찰 및 견학했다.

첫날인 28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임실군청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방문단을 맞았다.

곧바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 지자체 간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발

전과 상호 우의 증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 민 군수는 옥정호와 출렁다리, 봉어섬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조성사업, 오수 세계명견 테마랜드, 힐링하는 산림휴양지로 대변화를 꾀하고 있는 왕의 숲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심 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임실N치즈 제품인 요거트를 급식으로 무상제공 중인데, 강서구청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임실치즈요거트의 학교급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심 군수는 임실군은 옥정호 등 관광지와 더불어 임실N치즈로 유명하지만, 임실고추 등이 우수한 농특산품이 많으니, 지역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면 상생의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도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병원과 관광, 숙박을 연계한 메디컬특구를 조성 중인데, 이번 임실군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 같다”며 과거의 임실군과 지금의 임실군의 놀라운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심 군수와 진 구청장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있는 장미원과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옥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 등 임실의 관광명소를 시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임실군을 방문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임실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조성사업 등 주요 관광지를 견학했다.

# 남원시, 위기가구 돌봄·안전 체계 스마트화 국비 확보

### 실종 위기가구 1200명 확대 보급

남원시가 치매환자 등 위기가구 돌봄·안전 체계 스마트화를 위한 국비 3억2,500만원(복권기금)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산확보로 2025년도에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돌봄과 실종 제로화 배회감지기 구입

및 보급 추진 등 돌봄과 실종 위기가구인 1,200명에게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치매환자 등 돌봄과 실종 방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 국가예산전략센터와 협업,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여러 번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춘향제 기간인 지난 5월 13일에도 최경식 시장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방문해 치매환자 등 위기가구 돌봄·안전 체계 스마트화의 중요성과 예산편성을 간곡하게 요청한바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읍, 장재리 신기마을 주 진입도 선형 개량공사 추진

임실읍이 장재리 신기마을 주 진입도로(장재리 382-4) 선형 개량공사를 추진해 마을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임실읍은 이 사업이 소규모시설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을 주 진입도로라는 점에서 꼭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규모시설사업

을 넘어 전략적으로 설계·시공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했다.

마을 입구 도로 선형이 S자형으로 차량 및 농기계 운행 시 가끔 교통사

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겨울철에는 더 심한 실정으로 행정마을 주 진입도로가 현재까지 선형 개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임실읍은 이 사업이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했으며 선형 개량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은 29일 2024년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D-100일을 맞아 대회 조직위원회에 개폐막식 연출보고와 D-100일 카운터기 제막식을 가졌다.

# 제61회 전북도민체전 D-100일

### 순창군, 개폐막식 연출보고·카운터기 제막식 개최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화합장이 될 ‘제61회 전북도민체전’을 100일 앞두고 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 맞는 도민체전이 순창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더욱 의미 크다. 군은 29일 2024년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 D-100일을 맞아 대회 조직위원회에 개폐막식 연출보고와 D-100일 카운터기 제막식을 갖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2014년 이후 10년만에 순창군에서 열리는 대회로 ‘행복담는 순창에서, 함께하는 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으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3주 뒤인 9월 27일부터 9월 29일은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치러진다.

군은 대회기간 중 순창군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은 2만 5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7월 도민체전 TF

팀을 신설하고, 지난 1월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회 자문기구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성화봉송, 교통, 주차, 의료 등 핵심적으로 행여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군은 우선 39개 종목별 경기장을 조기에 선정 완료하고,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보수, 생활체육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파크골프장 신설 등 관내 체육시설 곳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외부 손님맞이를 위해 경찰, 소방, 의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주차, 교통, 의료지원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28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상황 관리를 위한 신속집행 보고회,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고관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와 경기 회복둔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서별 3억원 이상 사업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상반기 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2,101억원으로 설정해 선금·기성금 지급, 재료비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한시적 특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남원소방서, “공사장 용접 용단시 불티 조심”

남원소방서는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하고자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29일 밝혔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1,600도에서 3,000도로 최대 11M까지 흩어져 단열재 등에 들어 가면 화재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 요소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

주요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의 작업허가를 받고 사전 안전 조치후 작업 실시 △소화기, 소화수 비치 및 화재감지사 배치 등을 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해 청소년 심리안정 키트 배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청소년의 자해 행동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해 청소년을 돕기 위한 안전장구 구축하고 심리안정 키트를 배포했다.

센터에서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상담 제공을 위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학교와 W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해 예방 프로그램 활용방법’이란 주제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3일, 24일(2회기)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학교 등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흡 곤란 시 사용할 수 있는 흡입기(Inhaler), 상처 연고 등으로 구성된 심리안정 키트를 배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